일하는 청년에게 희망을 Hope for the working youth

세상을 향한 꿈을 가져라!

G마켓 대학생

등록금 지원 캠페인 2013

성과보고서

함께일하는재단

일하는 청년에게 희망을 Hope for the working youth

세상을 향한 꿈을 가져라!

G마켓 대학생
등록금 지원 캠페인 2013
성과보고서

함께일하는재단

일하는
청년에게
희망을

목 차

01 **개요** 사업 추진 배경 | 06

사업 개요 | 10

사업 추진 경과 | 12

02 **사업추진성과** G마켓 대학생 등록금지원 사업 통계 | 16

사업총평 | 28

03 **각종후기** 행사 후기 | 32

참여자 후기 | 40

04 언론보도 | 60

05 함께한 사람들 | 64

01 개요

1. 사업 추진 배경

2. 사업 개요

3. 사업 추진 경과

일하는 청년에게 희망을

사업 추진 배경

"학기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도 등록금 부담에 억눌린 대학생"

- 청년 사실상 백수 백만명 훌쩍
  – 99만명(2003년) –〉 122만6천명(2012년)
  (실업자 32만 6000명+'쉬었음' 인구 34만 6000명+취업준비자 55만 4000명)

- 정부의 청년실업률 통계는 6.7%(2011년, 통계청)이나 경색된 고용시장과 불안정 노동의 증가로 인한 구직단념자, 장기 취업준비자, 파트타임 불안정 노동자 등 실제 실업의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고려하면 체감 실업률은 22.1%로서 청년실업자 110만명을 돌파하였음.(2011년, 현대경제연구소)

연합뉴스 기사 2011.11.11

취업힘들어.. 공무원시험준비 30대 남 목매

공무원 시험에 수차례 낙방한 취업준비생이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졌다. A씨는 학업과 군 복무를 마친 직후부터 지난 4년간 공무원시험에 매달려왔지만 연이어 낙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7일 인천에서는 한 32세 남성이 2006년 지방대를 졸업한 뒤로 6년째 공기업 입사를 준비했지만 계속 낙방한 것을 비관한 나머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매 숨진 채 발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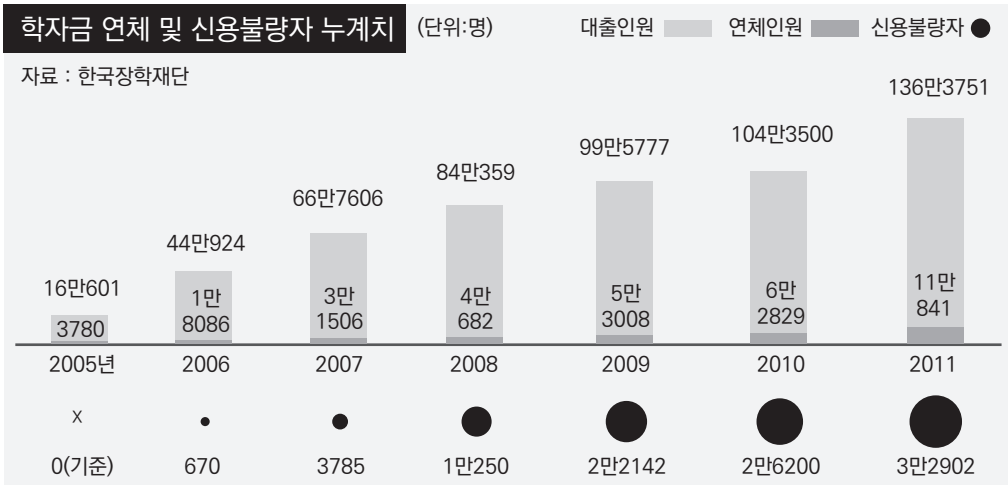
대구에서도 지난 5월 대학졸업 후 구직활동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며 아파트 30층에서 김모(26)씨가 투신해 사망하는 등 원하는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는 절망감에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 청년 시간제 근로자 43만명 사상 최대치 기록
  - 청년층시간제 근로자 7.3%(2003년)->12.0%(2011년)로 증가
  - 이 중 72.2%가 저임금 단순 노무직 아르바이트에 치중

- 대학 재학 중 한 학기 평균 346만원의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은 평균 8개월이 소요됨으로써 학자금 부채(대학생 부채비율 63%)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지님.(2011년도 G마켓, 함께일하는재단 학자금지원 사업 분석)

월 평균소득	재학생 월 평균소득	휴학생월 평균소득
377,977원	352,282원	565,800원
9.2개월	9.8개월	6.1개월
아르바이트를 통해 평균등록금(1학기 약 347만원)마련에 소요되는 기간		

- 3만 대학생 신용불량자로 전락
  - 136만 정부학자금 대출자 중 대출 연체자 11만 여명, 신용불량자 3만 여명(2011년)



"나날이 심각해지는 청년실업, 고액 등록금 문제에 비해 대책은 부족한 현실"

심각한 인식 확산

· 청년 취업난 속 신조어 양산

반값등록금, 청년실신, 이태백, 청년워킹푸어, 캥거루족, 삼포세대, 알부자족….

· 청년문제 관련 다양한 사회문제화

· 정부 청년관련예산 증액

정부 10조 5천억원 예산 청년 창업과 글로벌 취업 지원..
- BBS경제 2012.3.23

금감위 청년 창업지원 펀드 5천억 조성..
-노컷뉴스 2012.3.21

쏟아지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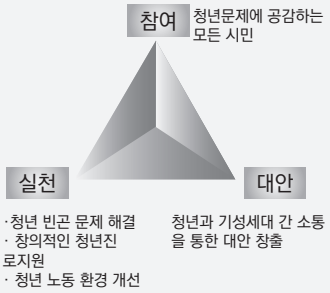
· 청년 실업률 증가

· 실질등록금 인상

·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기회부재

새로운 개선책

·참여와 실천이 가능한 대안적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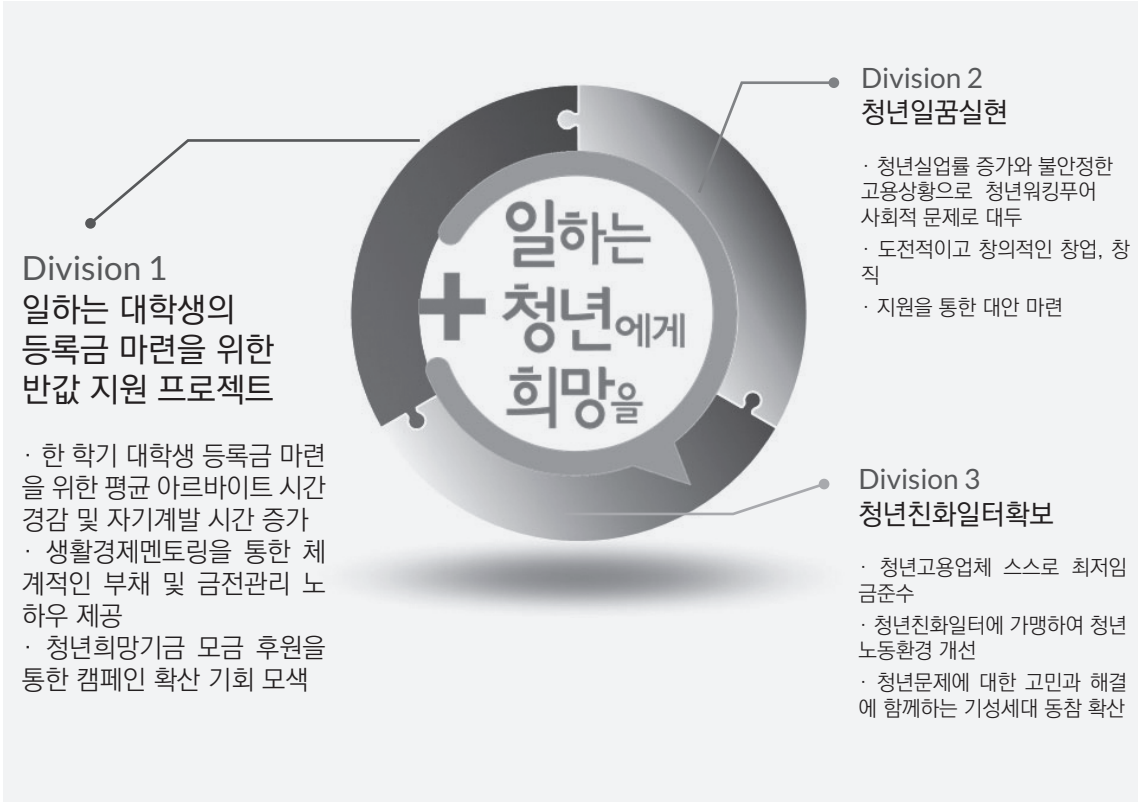


예) IMF구제금융시 실업극복을 위한 국민운동(1998~2002년도 함께일하는재단)

- 정부는 해마다 각종 청년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미미한 상태이며, 기업은 청년을 주제로 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마케팅 효과를 기대한 일회성 이벤트에 국한됨으로서 청년문제 해결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청년 문제 관련 연구 및 책자의 출간, 각종 청년 멘토링 콘서트의 유행 확산 등 청년 문제는 청년 당사자에게 만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주제에 관심 있는 개인 및 기성 세대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참여의 기회는 제한되어 있음.

"일하는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캠페인의 시작



일하는 청년에게 희망을

사업 개요

1) 사업명

G마켓 대학생 등록금 지원 캠페인 2013 (청년희망기금)

2) 사업 기간

2012년 11월 ~ 2013년 12월

3) 사업 주체

- 기 금 지 원 Gmarket
- 주 관 WT 함께일하는재단
- 멘토링 협력 eduMoney

4) 지원 대상

아르바이트 등 근로활동을 하는 청년 중 2013년도 2학기 대학 재학생 (복학 예정자 포함)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등 제외)

5) 지원 내용 및 절차

- **지원 내용 :** 2013학년도 2학기 등록금 (200만원)
  생활경제 멘토링
  인턴십 (취업정보) 제공
- **지원 절차**

일하는 청년에게 희망을

사업 추진 경과

공모 및 선발

2012.11
~
2013.01

- G마켓, 일하는청년에게희망을 캠페인 홈페이지
- 주요 내용
  신청 : 890명
  1차 서류심사 : 104명 선발
  2차 서류심사 : 40명 선발
  최종 면접심사 : 20명 선발

OT / 멘토링

2013.2.4.
WT교육장

- 주요 내용
  사업 오리엔테이션
  경제 특강 〉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주인으로 사는 법
  그룹별 경제 상담 및 멘토링

성과보고회

2013.10.5.
4층 회의실

- 주요 내용
  평가 설문 분석 내용 공유
  후기 공모전 시상
  진로 비전 특강

미션 수행

2013.2 ~ 8

- 개별 근로활동 수행
- 모니터링 및 생활 경제멘토링 지원

중간보고

2013.6

페어웰 파티
@ 지리산

2013.7.22 ~ 23

- 주요 내용
  아이스브레이킹
  Living Library
  둘레길 탐방

최종보고
및
등록금 지급

총 20명 지원
(전액 지원 19명, 일부 지원 1명)

02 사업추진성과

1. G마켓 대학생 등록금지원 사업 통계

2. 사업총평

일하는 청년에게 희망을

G마켓 대학생 등록금지원 사업 통계

Ⅰ. 일하는 청년, 등록금 마련을 위한 대학생 실태 – 공모에 참여한 총 890명

연간 사립대 등록금 734만여원, 이와 함께 학업을 유지하며 지출되는 생활비용 약 1천여만원. 이러한 비용이 현재 대학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있을까? 이제는 자신의 미래를 설계 하기 위한 배움의 길에 당연히 지불해야 할 수업료의 의미를 넘어, 학력 인플레이션 시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 치루어야 할 생존 비용의 의미가 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하는 우려감이 깊어지고 있다.

(재)함께일하는재단(이사장 송월주, 이하 '재단')은 G마켓의 후원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한 학기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손수 등록금을 마련하려는 대학생 20명을 선발하여, 등록금 절반에 해당하는 목표액 적립을 완수하면 나머지 절반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여기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조달 현황과 본 프로젝트를 거치면서 변화된 점을 통계로 정리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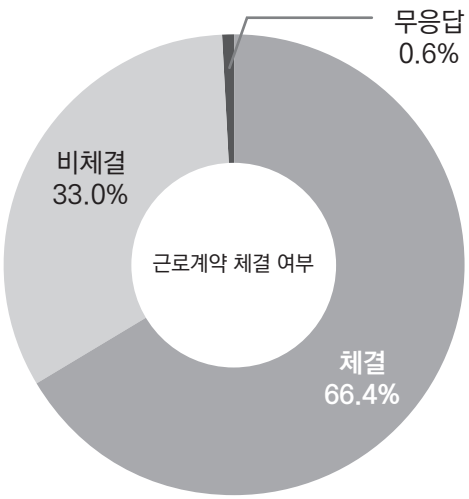
1. 일반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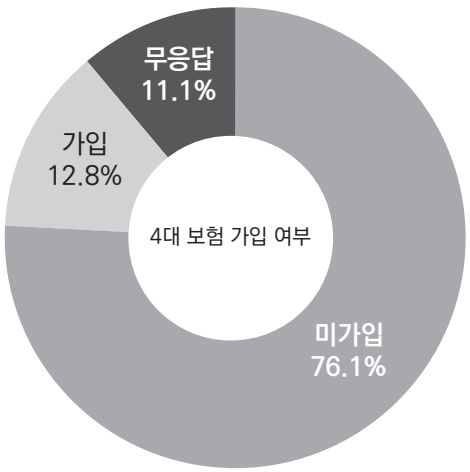
〈공모전 신청자 및 최종 선발자 비교〉

구분		신청자 (총 890명)	최종 선발자 (총 20명)
성별	남	194명 (21.2%)	4명 (20.0%)
	여	696명 (78.8%)	16명 (80.0%)
학년	1학년	335명 (37.64%)	4명 (20.0%)
	2학년	263명 (29.55%)	4명 (20.0%)
	3학년	202명 (22.70%)	8명 (40.0%)
	4학년	71명 (7.98%)	4명 (20.0%)
	무응답	19명 (2.13%)	0명 (0.0%)
재학 여부	재학	747명 (83.9%)	13명 (65.0%)
	휴학	128명 (14.4%)	7명 (35.0%)
	무응답	15명 (1.7%)	0명 (0.0%)
	평균 연령	21.9세	22.4세
	한학기 등록금	3,483,500원	4,036,200원
	학자금 부채	9,485,170원	14,514,04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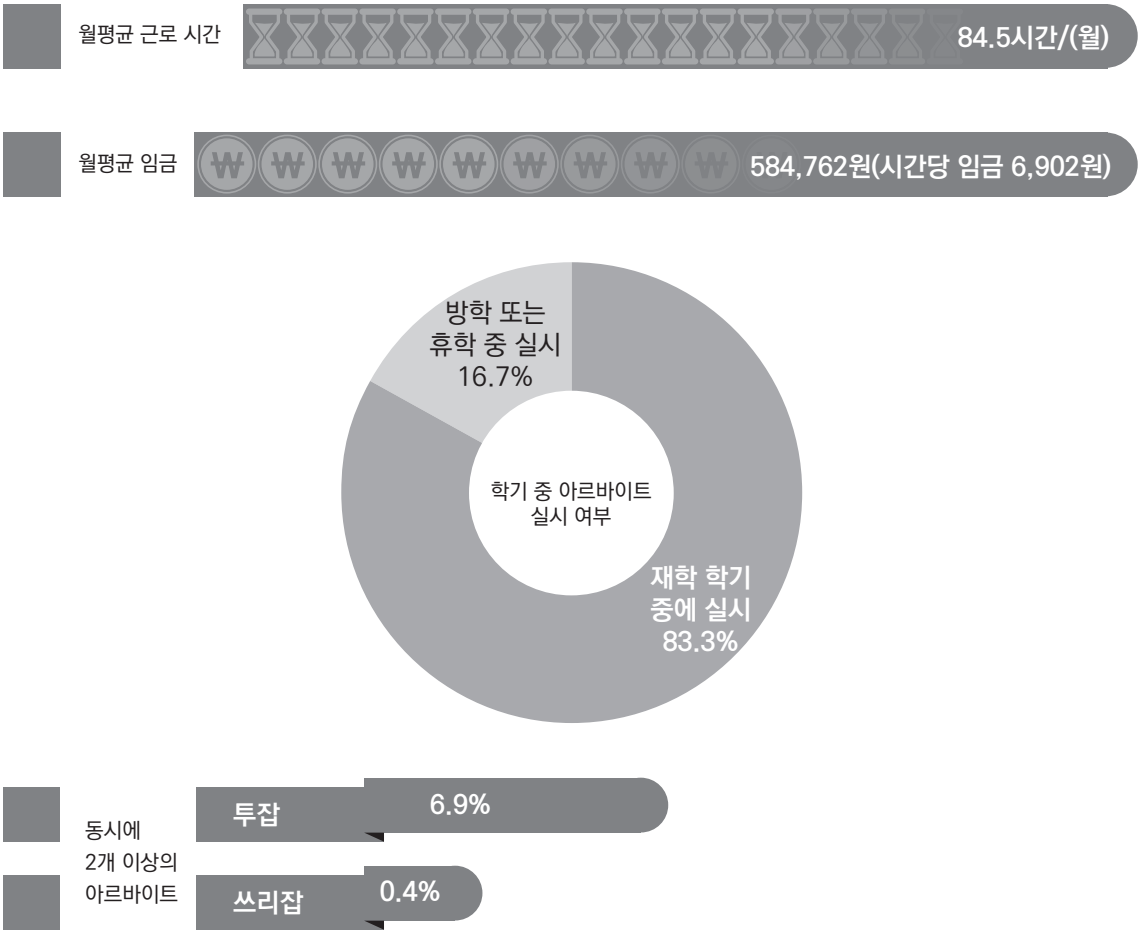
: 공모전 신청자는 총 890명이었으며, 이 중 여성이 78.8%를 차지 하는 것은 G마켓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신청을 접수함으로써 G마켓 쇼핑몰을 이용하는 성별이 대부분 여성인 것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여짐. 신청자의 한 학기 평균 등록금(3,483,500원), 평균 학자금 부채(9,485,170원)과 비교해 선발된 20명의 한 학기 평균 등록금(4,036,200원), 평균 학자금 부채(14,514,040)이 더욱 큰 것은 등록금으로 인한 생활경제적 어려움에 크게 노출된 대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함.[1]

2. 신청자의 아르바이트 근로조건 실태(총 56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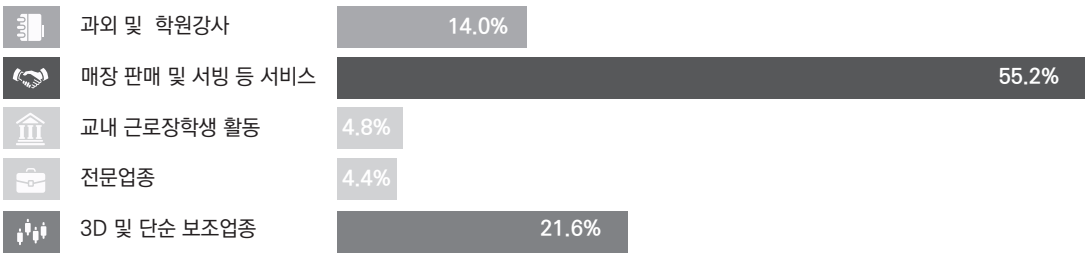


1 전국 평균 등록금 3,354,500원〈교육부, 2013〉, 대졸자 평균 부채 9,010,000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전체 아르바이트를 실시하고 있는 이들은 33%가 근로계약 비체결, 4대보험 미가입 76.1%로 불안정한 근로조건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월평균 84.5시간(주당 약 21시간)을 근로함으로써, 주 5일제로 근무할 경우 하루 4시간을 아르바이트를 함으로써 학기 중에 학업과 병행하여 아르바이트를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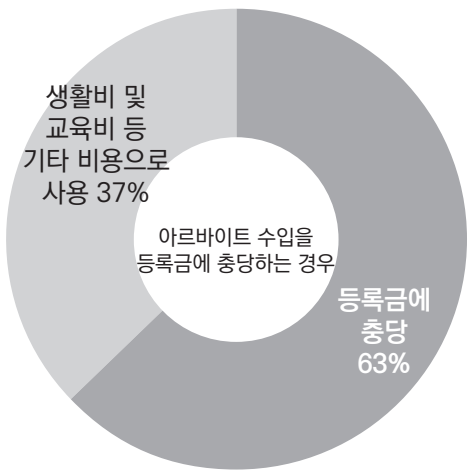
〈아르바이트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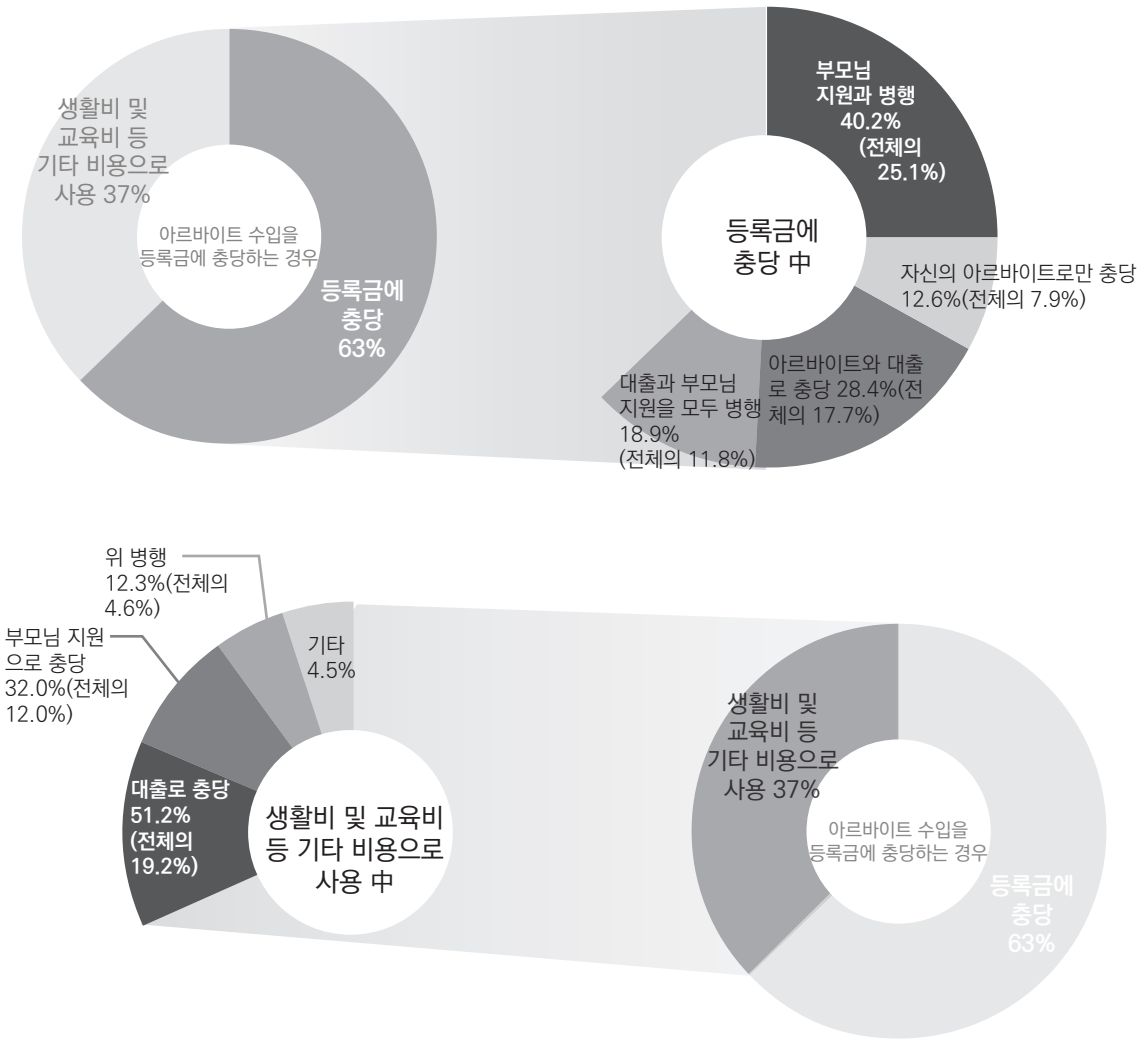
(83.3%)하고 있는 대학생의 경우, 매우 힘든 일과를 보내고 있음이 예상됨.

가장 많은 아르바이트 종류는 '매장 판매 및 서빙 등 서비스'에 5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3D 및 단순 보조'에 21.6%이며 '과외 및 학원 강사'는 14.0%를 차지하였다. 그 외 학업과 자기 진로를 고려한 아르바이트인 근로장학생과 각종 전문 업종은 각각 약 4% 수준에 그쳤다. 이는 전공 또는 자기 관심분야에 따른 아르바이트 취업 보다는 시간과 보수에 의해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대학생들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2]

3. 대학생들의 등록금 조달 방식



2 가장 좋은 알바로는 '조금 힘들어도 시급 많이 주는 알바(26.2%)'가 1위에 올라 무엇보다 경제적 목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2위는 '취업 희망분야와 관련 있는 알바(20.3%)'로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스펙 쌓기에 도움을 받고 싶은 바람이 크다는 점도 보여줬다.
이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알바(15.5%)', '좋은 사장님과 일하는 알바(10%)'가 3,4위에 올라 교통편과 사업주의 스타일 역시 이들의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시간 조절이 가능한 알바(9.1%)', '몸이 편한 알바(6.8%)', '좋은 동료와 일하는 알바(6.3%)'가 나란히 뒤를 이었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알바(5%)'는 최하위를 기록해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선호도와 장기근무 가능 여부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고충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생의 신분으로서 알바를 하며 가장 힘든 점'을 묻는 질문에 42.6%가 '학업과 병행해야 하는 것'을 1순위로 꼽았다. '일은 고되고 시급이 적은 것'에 대한 고충을 느끼는 대학생이 24%로 뒤를 이었고 '여가시간을 반납해야 하는 것'이라고 대답한 대학생도 16%나 돼 자신의 개인시간을 맘껏 누리지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밖에도 대학생들은 '사회에 나가 사람에 치여야 하는 것(9.7%)', '알바하는 시간에 뒤쳐지는 느낌이 드는 것(7.8%)' 을 알바하는 대학생으로서의 고충으로 꼽았다.(알바천국,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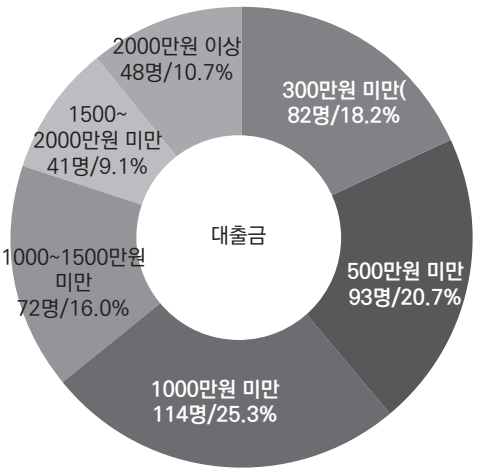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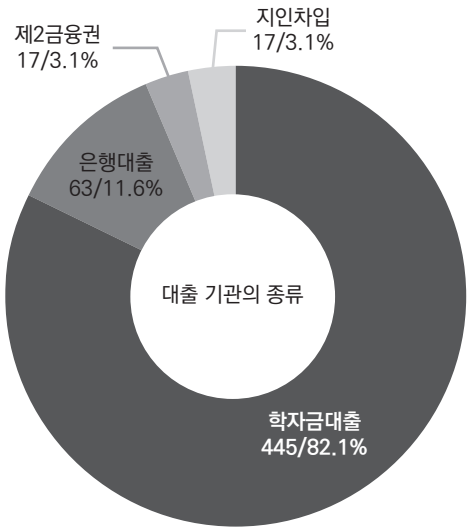
- 어떤 형태로든 부모님으로부터 등록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 전체의 53.5%이다. 이것은 자녀 학자금 충당이 부모세대에게도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에 대학생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누적된 학자금 부채 등으로 더 이상 부모님께 지원을 바랄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금 마련을 스스로의 힘으로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 아르바이트 수입금의 용도는 대부분(63%) 등록금 충당을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들 중 본인의 아르바이트 수입에 부모님의 지원을 보태거나(12.6%), 대출을 보태어 충당(28.4%) 또는 부모님 지원과 대출을 동시에 보태는 경우(18.9%)가 대부분이었으나, 자신의 아르바이트 수입금만으로 등록금

을 충당한다는 응답이 12.6%(전체의 7.9%)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350여만원에 해당하는 한 학기 등록금을 벌기 위해 투잡과 쓰리잡 등 과도한 아르바이트 참여한다고 응답한 수(7.3%)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

- 대학 재학 중 부모님의 지원이나 학자금 대출이 용이하지 않아, 전적으로 스스로 학비를 벌어야 하는 대학생들은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 뿐 아니라 과도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생활 빈곤, 부채 증가라는 심각한 생활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되고 있다.
- 여러 형태로 등록금을 충당하는 경우 중, 대출의 방식을 활용하는 대학생 응답자 수 역시 53.3%로 높게 나타났다. 이 들 중 부모님의 지원 없이 자신의 아르바이트 수입만을 보태는 경우는 전체의 17.7%였으며, 대출금만으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전체의 19.2%였다.

대학생 1인당 평균 학자금 부채 ₩₩₩₩₩₩₩₩₩₩ 9,485,170원





- 이미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선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보편화되어 있는 추세다. 그러나 과도한 등록금액으로 인해 평균 9,485,170원의 학자금 부채를 안게 됨으로써 이것을 갚아나가기 위한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감은 졸업 후에도 쉽게 떨칠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3]

3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2013년)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졸업자의 평균 학자금 대출액은 1천만원이고, 생활경제적 부담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직장에라도 빨리 일자리를 얻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발생된 부채가 진로선택에도 영향을 주고, 부모님 가계에도 큰 부담을 주어 장기적인 악순환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가신청을 한 전국 총 890명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매일 하루 2~3시간씩 아르바이트 근로를 하여 평균 임금 58만원여원의 수입을 얻고 있지만, 등록금 부담 뿐 아니라 생활비용 충당으로도 빠듯한 경제형편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리고 등록금은 대부분 부모님의 지원이나 대출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열 명 중 한 명은 자신의 아르바이트로만 등록금을 벌기 위해 휴학을 반복하며 투잡, 쓰리잡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심한 경우 졸업시에는 3천여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안게 되는 현실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재단은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간을 확보하면서도, 자신의 노력을 통해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으로서의 반값 등록금의 효과를 관찰해 보았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20명을 선발하여, 학업과 진로개발 시간을 상담을 통해 확보하도록 정하고, 소비생활 패턴에 대한 관리를 제공하여 사전에 약정한 등록금 반액을 적립하면, 나머지 절반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부모님과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노력을 통해 등록금을 충당할 수가 있었으며, 월 평균 4~5시간 정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험 기간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쉴 수가 있게 되었으며, 계획적인 소비습관을 길러 매워 10 여만원의 생활비용을 절약하게 되었다.

본 프로젝트의 가장 큰 의미는 학업을 뒤로 한 채 아르바이트에만 열중을 해도 학자금 부채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심리적 압박감을 일시적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자기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게 한 점이었다. 비록 등록금을 벌기 위해 고된 일을 하고 있더라도 현재의 자신은 여전히 꿈을 쫓아가야 하는 학생 신분이라는 점을 잊지 않도록 해 준 것이다. 젊을 때 사서도 한다는 고생이 적어도 청춘을 시들지 않게 하기 위한 사회 다방면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II. 일하는 청년, 자립하기 프로젝트 일반통계
–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학생 (20명)의 스스로 등록금 마련하기 현황

(미션 수행 완료 후 설문조사 요약)

1. 아르바이트 활동 현황(2013.2 ~ 2013.8)

주요업종	요식업 (카페, 음식점 등)	판매	교내 근로장학생	과외/ 학원강사	직장체험활동	사무보조	기타
빈도 (총 응답수)	9(30%)	3(10%)	3(10%)	4(13.3%)	1(3.3%)	8(26.7%)	2(6.7%)

〈투잡 등 중복 응답 10개〉

알바시기	주말	평일
빈도(응답수 27개)	14(51.9%)	13(68.4%)

〈주말, 평일 병행 7명〉

2.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변화와 긍정적 영향

① 아르바이트를 통한 반값 등록금 매칭미션 수행의 성과

근로조건 확보

근로시간 확보를 위해 학원을 새벽반으로 옮김, 하루 주야간 두건, 주말 연장 알바,쉬지 않고 일함.

좋은 아르바이트 확보를 위해 알바몬 어플, 좋은 알바 검색, 부산사직야구장 인근 각종 판매, 근거리 아르바이트(교내 기숙사 택배, 교회 바리스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적성분야에 맞는 아르바이트 선택, 가족의 일을 돕는 단기 아르바이트, 학업 관련한 근로장학생

합리적인 소비생활 개선

집에서 밥 먹는 습관, 카드 대신 현금 소지, 통신요금 절감, 은행어플을 통해 소비체크, 소비 절감(티셔츠 한 장만 구입), 커피 가격 절감, 텀블러 휴대, 와이파이 이용, 걷거나 자전거 이용, 구입시 10번 생각, 가계부 작성

② 미션 수행에 따른 주요 소감

사회 현실에 대한 이해(돈벌기의 어려움 절감, 청년에 대한 사회적 냉대(최저임금), 근로(판매직, 서빙)를 통한 사람 대하는 법, 자기계발을 통한 사회현실 적응의 필요성 절감)

효율적인 소비 생활의 중요성(카드와 현금 사용의 차이점, 충동구매 근절)

자기의 재발견(자신감과 일에 대한 열정, 인생 계획의 필요성, 낭비적인 소비생활 인식, 내 능력을 활용한 효과적인 돈 벌기 고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자기 경각심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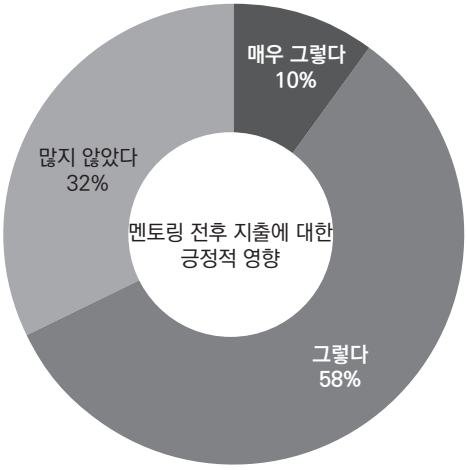
③ 미션 수행시 어려움 봉착시 해결 방법
(아르바이트로 등록금 모으기 + 효과적인 소비생활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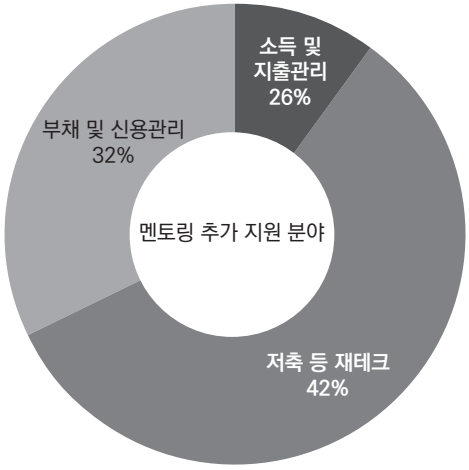
군것질과 쇼핑 –〉 **밥 먹기(살도 빠짐), 멀쩡한 옷 많음**
저축목표액 달성 –〉 **1만원이라도 여유분 저축**
학기초 발생하는 교재비 등 비용 –〉 **과외를 늘림**
스트레스 자체 –〉 **시간이 지나 자연 해결**
미션적립액 달성 –〉 **주말 아르바이트 개시**
놀지 못하는 일 –〉 **주위 분들을 생각하며 이겨냄**
구매욕구 –〉 **빨리 저금 이체하기**
일하면서 사람 대하기 –〉 **그냥 꾹 참음**
시험기간 –〉 **공부를 미리 다 하고 알바 후 저녁 공부**
심신이 피로 –〉 **마인드 컨트롤**
교통비 등 고정지출의 과다함
구매욕, 놀고 싶은 욕구 참기 –〉 **동네친구 수다**
지금 상황 자체 –〉 **지원 받는 날 생각하며 참기**
학교 등 거리가 멀었음 –〉 **학교 근처 고시원으로 이사**

④ 미션 수행 중 생활경제 멘토링을 통한 소비 패턴의 변화 및 지출 감소 요인

주요분야	통신비	교통비	간식비	무응답
빈도(%)	4(21.05)	5(26.32)	7(36.84)	3(15.78)

⑤ 생활경제 멘토링의 긍정적인 영향도





생활경제 멘토링 참여 후 교훈점

- 돈을 더 버는 일 보다 소비를 줄이는 게 더 낫다.
- 내 사정에 맞는 소비 및 저축 방식
- 돈은 불편하게 쓰는 것이다는 가르침
- 생활경제 강의, “매일 쓸 만큼만 지갑에 넣고 다니기”
- 절약과 저축
- 현금 사용 권장, 불필요한 지출과 충동구매 억제
- 개인회생 제도와 집안 가계에 대한 컨설팅
- 친구들에게도 멘토링 내용을 절달하여 개념있는 소비생활 전파

생활경제 멘토링이 미친 효과

소통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해결책을 제시함.
저금통장에 대한 조언, 사정에 따른 지출의 충고
돈 절약 방법에 대한 교육
현금 사용 권장과 낭비 방지
개인회생제도 컨설팅
정기적인 전화를 통해 지지감으로 용기

정기적인 상담 기회, 피드백이 있었다면 더 좋았겠다.
소통이 원활치 못했음.
내 기간으로 인해 적극 참여하지 못한 점
아르바이트 자체가 힘들어 자주 연락치 못한 점
중간에 멘토 교체
지출 절제는 내 스스로 관리
멘토링 시간이 짧았음

⑥ 아르바이트 근로 시간의 변화(=감소에 따른 자기 계발시간 투여)

월 평균
91.17시간
755,440원

86.82시간
711,110원

근로시간 4.35시간(4.7%)
(월 수입 44,330원 감소)

⑦ 캠페인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와 보완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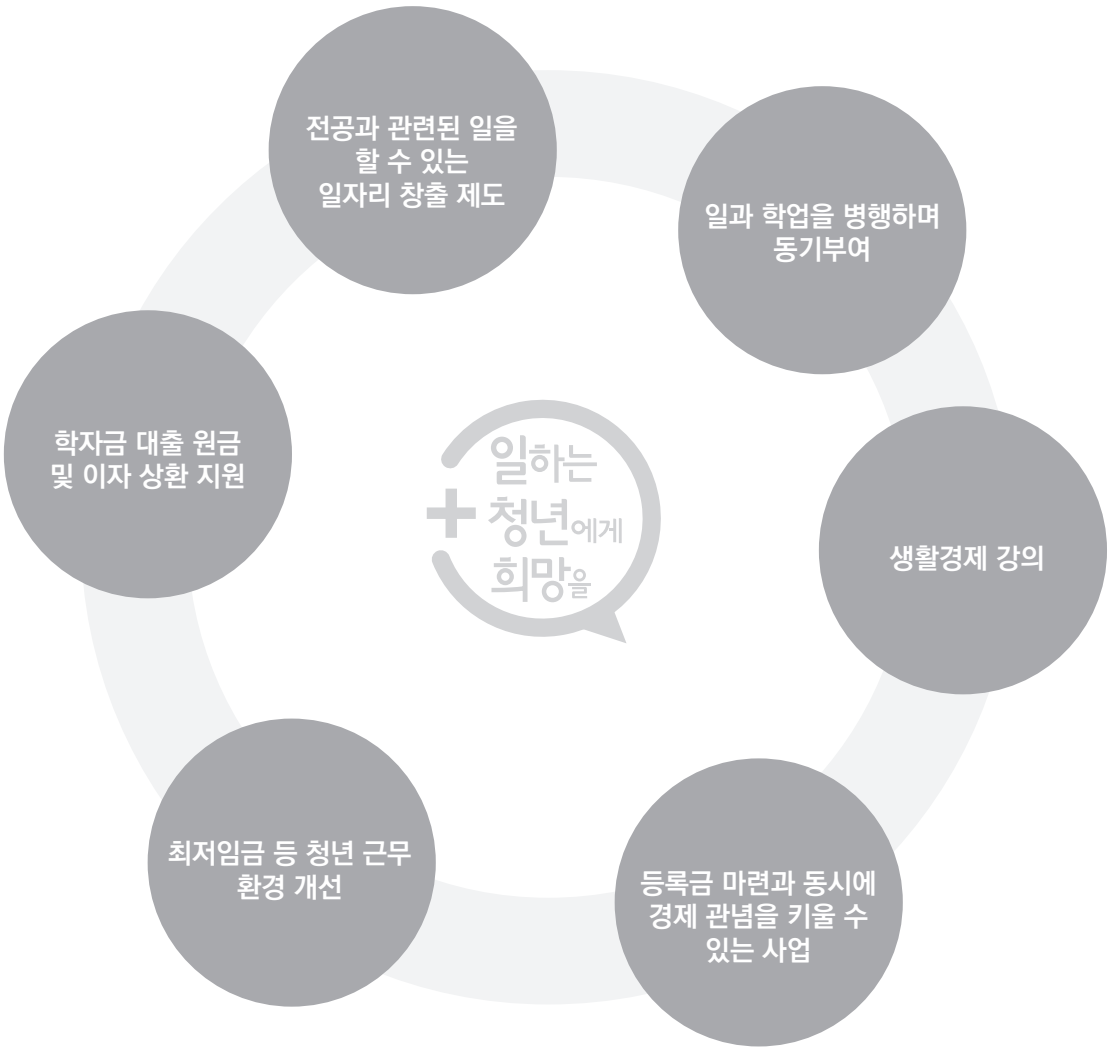
효과

등록금 및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
과잉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해 학업, 자기계발 등 “활용 가능한 시간”부여
생활 경제 관리를 통해 일을 하며 등록금을 모을 수 있는 용기와 동기 부여

보완의견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매뉴얼 제공
조금 더 밀착된 멘토링 및 중간 점검이 필요
장학생 근로 실태 조사, 점검이 자주 이뤄져야 함
선발 장학생 정보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필요

⑧ 일하는 청년을 위한 추가 사업 제안



일하는 청년에게 희망을

사업 총평

- 실업과 빈곤 문제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청년층에 대해, “일하는 청년” 또는 “일 하고자 하는 청년”의 실태를 재조명하고, 청년 본연의 특성인 창의적이며 도전적인 의식을 지지 및 지원하기 위한 국민 참여의 장을 만듦으로써 청년들 스스로가 자신들 바로 앞에 놓인 현실적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

- 등록금, 생계비, 역량강화, 경력형성, 진로탐색 등 자기 비용 부담을 사회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모금을 통한 등록금 지원(G마켓 후원)과 부채, 저축 관리를 위한 생활경제 금융멘토링(사회적기업 에듀머니 협력)을 병행하여 제공함으로써 학업 중단,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충분한 자기계발 기회를 확보토록 함.

- 대학생 20명을 선발하여 지원한 결과 부모님과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노력을 통해 등록금을 충당할 수가 있었으며, 월 평균 4~5시간 정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험 기간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쉴 수가 있게 되었으며, 계획적인 소비습관을 길러 매월 10여만원의 생활비용을 절약하게 됨.

- 또한 학업을 뒤로 한 채 아르바이트에만 열중해도 학자금 부채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심리적 압박감을 일시적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자기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게 함.

Gmarket
대학생
등록금 지원
대학생 등록금 지원 캠페인
FAQ
등록금 지원
신청하기
친구도 신청하라!
50,000
EVENT1.
주변 친구들에게 SNS로 알리고 경품 즉시추첨!
EVENT2.
추천지수 3회 이상 시, 안번 더 응모!

03 각종후기

1. 행사 후기

2. 참여자 후기

일하는 청년에게 희망을

행사후기 – 오리엔테이션 & 경제 특강

“세상을 향한 꿈을 가져라”
G마켓 대학생 등록금 지원 캠페인

– 오리엔테이션 및 재무 경제 특강 개최

일시 : 2013년 2월 7일
장소 : WT교육장
내용 : 사업 소개 / 재무 경제 특강 / 초기 경제 상담

2월 7일(목) 함께일하는재단 WT교육장에서는 G마켓 대학생 등록금 지원 캠페인에 최종 선발된 2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업 오리엔테이션 및 재무 경제 특강이 열렸다.

1부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기존 장학사업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지원되는 G마켓 대학생 등록금 지원 캠페인의 지원 절차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최종 선발된 학생들은 본인의 한 학기 등록금에서 200만 원을 뺀 금액을 4~6개월 간 근로 활동을 통해 적립하고, G마켓 지원금을 더해 2013년도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게 된다. 대학생들은 지원금을 받음으로써 근로 활동의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경제 활동을 보다 계획적이고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2부에는 사회적기업 (주)에듀머니 박종호 본부장이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재무 경제 특강에 나섰다. 박 본부장은 특강을 통해 돈보다 삶과 사람의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 냄새나는 경제 이야기, 재테크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저축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고 무조건 많은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만큼의 돈을 벌어 건강하게 돈을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소비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어 많은 호응을 받았다.

특강이 끝난 후에는 5명씩 그룹을 이뤄 각 그룹별로 에듀머니의 재무주치의 개별 상담이 이어졌다. 상담 과정은 각자의 수입,지출 등 경제 상황에 대한 조사와 심화 상담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개인별 미션을 수립하였다. 이들은 앞으로 6개월 간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받게 된다.

일하는 청년에게 희망을

행사후기 – 패어웰파티@지리산

권지윤 (청운대 화장품과학과)

2013. 07. 22 월요일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나랑 함께해온 'G마켓 등록금지원 캠페인'
그때의 나에게는 가장 큰 도전이자 경험이었고, 인생에 있어 한 터닝 포인트 지점이였던 소소한 활동이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

전날, 가방조차 싸지 않고 그저 지리산! 이라는 설렘만 가득안고 잠을 잤다. 그리고 새벽 4시에 힘겹게 일어나 주섬주섬 짐을 싸고, 씻고, 화장을 하고 9시까지 홍대에 위치한 '함께하는재단'사옥을 가기 위해 경기도 변두리에 위치한 나는 일찍이 7시에 출발했다.

일시 : 2013년 7월 22일 ~ 23일
장소 : 지리산
내용 : 친해지기 / 미션활동 공유 (리빙라이브러리) / 둘레길 탐방

새벽 4시에 일어났을 때 비가 정말 홍수나듯이 왔었다...
그래서 가지말까? 라는 생각을 수 백번 정도 했지만 이 활동만큼은 어떻게든 마무리를 잘 짓고 싶어서 엄마아빠가 그 새벽에 일어나 가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운동화며 옷이며 다 젖어가며 꾸역꾸역 갔다.

'함께일하는재단' 사옥에 헐레벌떡 도착했더니 와있는 사람은 2명뿐... 나를 포함해 3명. (모두 여자)
그렇게 해서 인솔자인 규성삼촌과 우리 세 명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여성 한분이 더 오셨다. 그리고 지방에서 오는 여성분도 한분 계셨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른 분들은 전부 못 오셨다고 한다.
나도 오지말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많이 공감은 갔었다.
그래서 여자5명과 인솔자4명 총 9명의 안락한 인원이 지리산으로 출발했다.

비는 여전히 추적추적 무섭도록 내리고 있었고, 행여나 활동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을 했지만 남부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비가 점점 그치면서 해가 쨍쨍하게 비치기 시작했다.
사옥에서는 어색어색했지만 차를 타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든, 다 같이 말도 놓고, 간식도 먹고 노래도 부르며 왁자지껄 이야기를 하며 갔다.
해가 따갑도록 쨍쨍거리고 맑은 공기와 매미소리 풀벌레소리에 저절로 몸도 마음도 정화되는 것 같았다. 어떤 각도로 어떻게 찍어도 사진이 화보같이 나오는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곳, 아름다운 날이였다.

아이스크림도 먹고 마루 하나 빌려서 수박도 먹고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마냥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신나게 놀았다.

물놀이 덕분에 온몸이 젖어서 차에 탈 수 없기에 저렇게 트렁크에 문 열고 슝슝- 숙소까지 이동!!!
(저때 뒤에 오던 차랑 인사를 했었는데 그 분이 우리 사진을 찍어가셨다. 저기.. 혹시 이 글 보시면 사진 좀 보내주세요~탐나네요 그 사진〉〈!!)

둥글게 앉아 풍선을 돌리면서 각자 한 부분씩 그 사람의 얼굴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풍선놀이(?)도하고 (진짜 이 활동하고 전부 빵 터졌었다.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이렇구낰ㅋㅋㅋ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닮은 듯하지 친근감 있다며 전북ㅋㅋㅋ)

숙소 벽에 붙여놨는데 전부 잘 때 가위 눌릴까 무섭다며ㅋㅋㅋㅋㅋ 자기가 쳐다보고 있다고 엄청 웃었었다.
나는~~~입니다. 하면서 비유를 한 뒤, 에피소드를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것이었는데 여러 명에게 주목받는 것을 못하는 나는 횡설수설 말더듬이였다;; (어버버~어버버 더듬더듬~)

주막 같은 큰 공간과 자연 그대로의 숯불! 심지어 주변에는 막걸리양조장도 있었다.
밤새도록 왁자지껄 자신의 이야기를 떠들어대며 하하호호깔깔껄껄 잠들 줄 몰랐고, 한참을 그렇게 놀고 있을 때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인솔자 삼촌들의 참된 삶의 이야기도 듣고, 언니들의 대학생활 이야기를 들으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한 계기가 되었다.

재밌었다. 내가 조금 더 큰물에 뛰어든 것만 같아 짜릿한 기분이 드는 밤이었다.

둘째날, 우리가 트레킹 할 곳은 3코스로 넓디넓은 지리산 둘레길 중 엑기스만 한다고 하셨다.

드디어 목적지 도착.

도착하고 나서 기분 좋아서 덩실덩실 춤추고 난리 났었다. :)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모두 곯아떨어질 정도로 열심히 즐겼다. 비가와도 꾸역꾸역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을 했다.

낯선 사람들을 만나 10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게 참 어처구니없으면서도 재밌고 친구란, 나이와는 상관없다는 걸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었다.너무 좋은 언니들과 친구가 생겼다 *-*ㅋㅋ좋은 말들을 많이 듣고 응원 받은 1박2일 하... 또 가고파 ♥ 또 보고파 ♥

일하는 청년에게 희망을

행사후기 – 성과보고회

지난 10월 5일(토), 재단 4층 회의실에서는 "세상을 향한 꿈을 가져라!" G마켓 대학생 등록금 지원 캠페인의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보고회가 열렸다. 학기가 시작되어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참여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종 활기있게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2012년 11월 사업 공고 이후 10개월간 진행했던 캠페인에 대한 경과보고와 최종 모니터링 당시 학생들이 제출했던 설문서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 캠페인 성과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대학생들의 과잉 근로 시간을 줄여 자기계발과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시 : 2013년 10월 5일
장소 : 재단 4층 회의실
내용 : 평가 설문 결과 공유 / 후기 공모전 시상 / 진로 비전 특강

주었으며, 생활경제 멘토링 지원을 통해 계획성있는 소비 생활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무엇보다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이 더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성과 공유 이후 더밸류 강지훈 대표의 진로비전 특강이 진행되었다. 순발력 게임, 가위바위보 등 간단한 게임으로 분위기를 만든 후 청년 대학생들이 가져야 할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어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학생들이 미션 수행하며 느낀 점을 적어보낸 사업 후기 공모 시상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일하는 청년에게 희망을

참여자 후기 – 대학생

Episode 1

후기공모전 1등 | 아주대 영문과 김새롬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었던 기회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아르바이트에는 2가지 유형의 아르바이트가 있었습니다. 단기간 고수익을 내기 위한 전일제형 아르바이트와 학교와 병행할 수 있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이렇게 2가지입니다. 우선 고수익형 아르바이트는 전일제였기 때문에 학교와 병행할 수 없었습니다. 학생신분으로서 책임져야 할 학업을 뒷전으로 두고 학비를 벌기 위해 휴학을 해야만 했던 그 때는 참으로 모순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역시 모순적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일, 학업 두 가지를 한 번에 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많이 부쳐서 둘 중 어느 하나에도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학기 드디어 주객이 전도되었던 상황은 반전을 이루어냈습니다. 학비에 대한 부담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일'을 선택할 때 항상 포기해야만 했던 질 좋은 '일'들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일'은 나중에 제가 선택할 직업과도 관련성이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채용자와 면담시간을 통해 배우고 싶은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사전달을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근로계약이 끝난 지금, 저는 학교 수준에서 줄 수 있는 역량과 실제 직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 사이의 차이를 실감하고 이를 메우기 위한 다음 '직업체험' 기회를 알아보고 있으며 관련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수강신청 역시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돈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질 높은 일을 선택할 수 있게 후원을 해준 G마켓 · 함께일하는재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월해진 근로시간 덕분에 일궈낸 성적장학금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던 것을 4시간으로 확 줄여서 하다 보니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란 말은 진짜였습니다. 우선은 아르바이트 시간에 맞추어 학교를 빨리

떠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다보니 자연스레 도서관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교수님과의 면담횟수가 빈번해져 학문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학기에는 총 6개 과목 중 5개 과목의 조모임 조장을 맡을 정도로 학업을 위한 제 시간을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니 대학교 들어와서 처음으로 성적장학금이란 쾌거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해 내딛는 첫걸음

오리엔테이션 날 에듀머니 강사님께서 생활경제 강의를 통해 실생활에서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합리적 소비생활습관들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 때는 별로 와 닿지 않은 내용들이었지만 G마켓 · 함께일하는재단의 후원이 끝나고 지금까지의 내 잘못된 소비생활을 고치지 않는다면 분명 학자금 대출을 다시 받게 되는 순간이 다시 생기겠지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에 제 나쁜 소비생활을 고치기 위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 지출비용만 지갑에 넣어두고 다니기”는 제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합리적 소비실천 목록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대생이 하루에 만원만 지갑에 넣어놓고 다니는 것이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하루에 만원도 채 다 못써 일주일동안 누적시킨 돈으로 필요한 물품도 사고 부족함 없이 하루하루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취칙하고 갚으면 되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부채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계 부채를 파악해보는 표를 작성해보며 내가 상환해야 하는 부채의 정도, 우리 집이 갖고 있는 부채의 심각성을 단번에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것들을 일깨워주고 좋은 습관을 형성하게 해준 이번 캠페인은 제가 앞으로도 합리적인 소비패턴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기점이 될 것입니다.

1차 면접을 보는 것만 해도 나에게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가능성이라는 것을 실감하였는데 2차 합격자 발표에서 덜컥 붙어버리니 정말 감사하고 주위에 좋은 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pisode 2

후기공모전 2등 | 홍익대 영상영화 김지현

함께일하는재단 강의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며 돈 관리에 대한 강의를 듣고, 담당자와 계획을 세우니 의욕이 상승하면서 미션 수행에 앞서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다. 혼자 계획 세우는 것보다 훨씬 세세하게 준비할 수 있었고 모르는 부분을 많이 알 수 있었는데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으는 것이 더욱 중요한 점을 상기 시켜주셨고 그 부분에 있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 주셨다.

내가 하는 아르바이트는 미술학원에서 시간제 강사일이다. 중학생들이기에 4,6월 은 학생들 시험기간으로 나가는 날이 줄어들기에 나머지 시간을 최대한으로 일해야 했다. 장학금을 놓치면 안 되기에 주중에는 학과에 최대한 집중하여 주말에만 일을 하였는데 토, 일 8시간씩 일을 하였다.

3월은 계획대로 겨울방학에 모은 돈은 재료비와 생활비로 쓰고 아르바이트를 한 돈을 따로 모았다. 학자금 이자, 통신비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금액이기에 생각처럼 줄일 수 없었지만, 도시락을 싸서 다니니 식비를 줄일 수 있었고 음료를 물로 가지고 다니면서 음료 구매하는 비용도 줄일 수 있었다.

4월은 재료비가 본격적으로 많이 들어갈 시기라 최대한 아끼느라 마음만큼 작품 퀄리티가 나오지 못한 점이 아쉬웠지만 이렇게 아끼며 작업할 수도 있구나를 실감하였다.

통장에 있다 보면 자꾸 인터넷 뱅킹으로 돈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여 유혹이 쉽기에 돼지저금통을 사서 돈을 모으기로 결정.

이 기간은 학원 학생들이 시험기간이라 수업이 별로 없기에 월급이 적었다. 다른 강사들은 쉬는 기간으로 삼주동안 안 나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지만 수업을 최대한 받아 약 40만원으로 다음 달 생활비를 준비할 수 있었다.

5월은 재단에서 중간평가를 하는데 정작 모은 돈이 70만원이라 허탈함과 함께 지출을 더 이상 줄이는 방법이 없어 방학 때 더욱 일하기로 결정하였다. 월급만 받으면 왜 이렇게 바로 나가는 곳은 많던지... 졸업 사진 찍느라 옷이나 기타 준비비용으로 지출이 계획보다 초과된 상태였다.

6월 종강 시즌이라 바쁜 마음에 미션 수행도 벅차지고, 이러다 장학금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일은 계속하지만 최대한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미션 수행에 대한 생각을 조금 놓았다. 그러더니 지출이 계획보다 대략 15만원이나 더 나왔다. 긴장이 풀어진 결과는 처참하였다.

미션 수행 결과 보고의 막바지가 되어 7월은 교정 치료 중 문제가 발생하여 치과비로 20만원 정도 초과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 당황하였다. 목표금액에서 조금 모자라더라도 최대한 모아보자고 마음먹었다. 그 결과 약 170만원을 모으는 것으로 미션 수행을 마쳤다.

페어 웰 파티를 참가하며 지리산 여행은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함께일하는재단의 강사님들께서 너무나 잘해주시고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해주셔서 미션 참가자들을 위한 파티였다! 기억에 남는 시간은 '자신의 책 쓰기' 시간으로 간단하게 목차와 제목을 계획하는 것이다. '나는 000입니다' 로 시작하여 소제목 두가지정도 정한다. 그 후 발표를 하고 선물로 책 두 권을 받을 수 있었다. '나는 인복이 많은 사람입니다'로 시작하여 가족 간의 추억, 소중한 사람들 간의 인연을 발표하였다. 발표를 하며 서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웃음으로 시작하였지만 눈물이 고일정도로 감동이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나도 모르게 감정이 몰입되며 애써 마음 추스르기 바쁠 정도였다. 각자 자신들의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저녁식사로 오 분 거리에 있는 막걸리 양조장에서 신선한 막걸리를 바로 가져와 고소한 흑돼지 바비큐와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하였는데 미션 수행자들 간의 대화도 즐거웠지

만, 인생선배로서 강사님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흥미로웠다.

요번 G마켓 등록금 지원 캠페인 미션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주어지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나에게 “너 잘하고 있어 좀 더 힘내!”라고 격려해 주는 것 같았다.

8월이 오고 동생에게 빌려주었던 돈, 친구 바쁠 대 아르바이트 대신 나가 일해 준 돈, 집에 모아두었던 돈을 긁어모았다. 대략적으로 생활비는 월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40만원, 저축 또한 차이가 많았는데 한 달 30만원이 목표였지만 지출이 예상치도 못하게 초과되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정 금액을 모으기는 힘들었다.

생각보다 학기 중에 200만원 모으기는 정말 힘든 일이었다. 170만원으로 부족한 금액이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미션 수행을 마치니 재단에서 200만원이 들어왔다. 정말 뿌듯하고 감사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여 나의 발전에도 힘써야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어본다. 이 고마움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

Episode 3

후기공모전 3등 | 한양여자대학 산업디자인과 최자인

2012년 10월 경, 다음 해 복학을 준비하던 평범한 휴학생은 G마켓에 접속해 생필품을 구경하다가 우연히 G마켓과 함께일하는재단의 등록금 지원 이벤트를 발견했다. 보아하니 복학과 등록금에 대한 부담으로 가득한 이 시점에 나와 딱 들어맞아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자기소개서와 이벤트 설문을 작성해 나갔다. 내심 기대 반 설렘 반, 그러나 경쟁자들이 많으니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결과만을 기다렸다.

1차 서류에 무사히 통과했고, 너무 떨려 잠 못 드는 밤을 지새고 찾아 간 2차 면접에서도 운 좋게 통과해 합격을 누렸다. 단순히 참 운이 좋은 사람이기도 했고, 꿈의 반 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잡게 된 영광의 대학생 이기도 한 순간. 아직도 그 떨림을 잊을 수가 없다. 지금 떠 올려봐도 이리 가슴이 벅차고 입가에 미소부터 지어지니 말이다.

합격 후 재단에 직접 찾아가 지원자들과 담당자들을 만났고, 멘토 강의를 듣고 계획을 짜면서 느꼈던 점은 이번 등록금 지원 사업은 생각보다 큰 규모, 철저한 프로그램으로 짜여 졌으며 합리적인 프로그램 이란 것 이었다. 우리 지원자들에게 던져 준 미션 자

체도 그러했다.

단순히 생활고에 시달리고 기초 생활이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등록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식이 아닌, 정말 평범한 우리나라 대학생에게 아르바이트 등 자신의 힘으로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지원금을 지원 하겠다는 방식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한창 좋을 젊음의 20대인 우리들에게 그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독려하고 학교에 대한 책임감은 잃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이뤄나가 성취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조건이 아니었나 싶다.

그 곳에서 강의와 생활 멘토 등으로 직접적인 수입과 지출을 상세히 체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딱딱하고 부담 되지 않던 분위기, 웃으며 다소 가벼운 마음으로 목표금액에 대한 계획을 짜고 새롭게 마음을 다졌던 기억이 난다.

처음에는 꽤 힘들어 했다. 목표액을 채워나가는 도중에도 느낀 서툰 내 모습에 의문 투성 이었다. '내가 이렇게 쓸데없는 지출이 많은 사람이었던가?', '내가 이렇게 계획적이지 못하고 재정 불안정한 사람이었던가?' 등 여러 번의 정신적 붕괴도 있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아르바이트 미션 수행 중 재단담당자님은 항상 예상치 못하는 중간 점검을 하시기도 했고, 멘토님의 중간 연락에서 지출과 적금의 대한 대화만큼은 귀신 같이 적중했다. 그렇게 칭찬 받기도 혼나기도, 격려와 조언을 받기도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목표액을 채워나가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올해를 보낸 듯하다.

그러나 확실한건 이번 등록금 지원과 미션의 계기로 인하여 생활 속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었다는 점과 어느 순간부터 철저한 계획 구상이 생겼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지원금을 받고자 시작했는데, 미션 수행 도중 어느 순간부터 계획적인 내 모습과 만족감 그리고 성취감으로 빛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꿈의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 준 G마켓과 함께일하는재단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내 최고의 행운이자 경험이었다고 전하고 싶다. 또 꿈을 향해 돌진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기회를 많이 접해 그를 토대로 꿈을 향해 한걸음 다가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Episode 4

후기공모전 3등 | 서경대 공공인적자원학부

학비를 고민하며 동생의 입학과 함께 휴학을 해야 했던 지난 날, 우연히 G마켓에서 '일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등록금 지원사업'을 보게 되었고 솔직한 마음을 담아 신청서를 작성했었다. 사실 지원자도 많고,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게 웬걸, 1차 서류심사에 합격했다는 문자가 왔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두근대는 마음을 안고 도착한 면접장. 면접을 볼 때에도 무척 떨렸지만 그래도 '솔직함을 잃지 말자'는 다짐을 하고 가서인지 담담하게 대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문자임을 알리는 짧은 진동을 느낀 그 순간에 나는 나도 모르게 양손에 힘을 꽉 주고 핸드폰을 들었다. 솔직히 그 문자에서, 나는 그 어떤 조사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정말로, '최종합격' 이라는 네 글자밖에 안 보였다.

최종합격 이후 6개월 동안 달성하게 된 미션, 200만원을 제외한 등록금 모으기. 당시 주말에는 카페 알바를, 평일에는 하고 싶은 대외활동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면서 시간을 보냈던 나는 그 날 이후로 평일에도 짬을 내서 틈틈이 알바를 하였고(평일 알바생이

따로 있어서 매번 사장님께 오늘 잠깐이라도 일해도 되냐고 물어보곤 했는데, 처음에는 거절하시던 사장님께서 내 사정을 알고는 필요할 때마다 나를 불러주셨다.) 주말에도 연장근무를 마다하지 않았다. 고마운 사장님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고,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그리고 내가 미션수행을 위해 애쓰는 동안-23년 동안 그래왔듯이-시간은 단 한 번도 나를 기다리지 않고 쉼 없이 흘러갔다.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 돌아온 7월. 페어웰파티를 할 거라는 소식을 들었다. 사실 처음 모였던 날 이후로 다른 아이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1박2일로 떠나는 이 페어웰파티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면, 이 1박2일 간의 짧은 여행을 가지 않았더라면 나는 단언컨대 두고두고 땅을 치며 후회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나에게는 이 여행이 나의 몇 년치 피로를 싹 풀어줄 만큼 소중했던 '힐링캠프'였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넘어야 할 산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단순히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은 산기슭에 있기 때문에 도와주어도 산꼭대기를 넘을 수가 없는데 우리처럼 생활이 어렵지만 무언가를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아이들은 조금만 도와주면 꼭대기를 혼자서도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뽑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지금껏 내가 쌓아온 것들에 대해 확신을 받는 기분이었다.

이제는 8월이 되었고, 미션수행도 완료했고, 지원받은 등록금으로 복학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단순히 이 몇 가지 사실만으로는 나의 지난 6개월을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시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끝도 있으므로, 이제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다. 그리고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마운 사람들,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Episode 5

후기공모전 3등 | 대구대 신문방송학과 신엄지

우연히 G마켓에서 일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것을 보고 '내가 뽑히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한번 지원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썼다. 그때의 나는 자신감은 없었지만 간절함과 진심을 담아서 지원하였다. 진심이 통하였는지 면접까지 볼 수 있었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난생 처음 혼자 서울에 올라와 새벽 3시가 넘는 시간까지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생각해보면서 참 많이 떨었다. 면접을 너무 떨면서 봤다고 생각하니 분명히 내가 20명 안에 들지는 못하겠다 라고 생각했지만 얼마 뒤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다는 문자가 도착했다. 엄청나게 뿌듯하였다. 공부 못하는 내가 처음으로 받는 장학금이였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는 쉽지 않았다. 체력적으로 심적으로 힘이 들었다. 아프거나 놀고 싶을 때 마음 놓고 놀지도 못했고 매일 집에 오면 잠자기 바쁜 나였다. 열심히 일하면서 사람들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한 적이 많았지만 참으며 견디며 일했다. 힘들던 시간이 지난 지금 지리산으로 페어웰 파티를 하러 갔던 것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2월에 한번 만나고 처음 만나는 것인데 어색해서 어쩌지? 1박 2일만에 친해 질 수 있을까? 20명중에 11명이 온다던 행사가 결국 5명만 와버린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헛된 것 이였다. 차에 타고 지리산으로 향하는 그 순간부터 진짜 동생, 언니, 조카, 삼촌, 이모처럼 가까워 질 수 있었다.

바베큐 파티를 하면서 옹기 종기 모여 사진도 찍고, 많은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김창주 팀장님께서 합격 기준을 묻는 우리에게 말씀 하시길 '약 900명 중에 20명, 즉 40대1의 경쟁률을 뚫고 뽑힌 여러분들은 여러가지 환경이 어려워서 뽑힌 것이 아니라 장학금을 지원받음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 가지고 있는 꿈이나 결심을 계속 유지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다. 그 한마디가 우리들에게 많은 울림으로 다가왔고, 꿈에 대해서 응원해 주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든든해졌다. 비오는 지리산 둘레길은 앞머리가 젖어도 즐거웠고, 재단 식구분들과 언니, 동생들과 헤어지는 순간이 정말 아쉬웠다. 지리산 페어웰 파티는 22년 많은 순간들 중에서 가장 행복했고 즐거웠으며 진실했던 시간이였다. 잊을수 없을 것이다.

2월부터 시작해서 7개월 동안 이어왔던 장학금 지원 사업은 8월 중순에 끝이 났지만 우리들만의 끈끈한 관계는 아마도 계속될 것 같다.

인생의 출발선은 내가 살아온 것 을 후회할 때 시작되는 것이라고 한다. 자기 소개서를 쓰면서 가졌던 간절함과 진실함을 늘 지켜가며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겠다.

일하는 청년에게 희망을

참여자 후기 – 멘토

동정 없는 세상에서 재정적으로 자유롭게 살기

(주)에듀머니 김미선 본부장

친구들을 처음 만난 것은 한겨울의 동장군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2013년 2월 초였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 스무 명에 선발되었다는 기쁨과 설렘도 잠시. G마켓과 함께 일하는재단에서 후원해 주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친구들의 노력도 보태져야만 한다는 현실 때문인지, 학업을 병행하면서 적지 않은 금액을 모아야 한다는 부담감과 미션을 성취하고 싶은 열정 때문인지 재단 내 미팅 장소는 후끈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 개인의 가정사와 재무 상황 등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참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밝고 긍정적이며 한 친구 한 친구 모두 예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과연 미션을 모두 완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으며 특히 어려운 가정 형편에 일을 해서 번 돈을 오히려 가정에 보태야 한다는 어느 친구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마치 나의 일 인양 안타까움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스무 명 거의 모두 미션을 수행하여 장학금을 받았지만, 그 어느 해보다 뜨겁고 작렬했던 태양 아래 여름을 보냈을 친구들에게 장학금은 승리한 선수에게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주어져야만 하는 월계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만 재무 상담 전문가로서 조금은 우려스럽고 또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이 친구들에게 전혀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라 몇 가지 잔소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몹시 불행하게도 정규직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졸업 후 근로 소득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대다수의 청년에게 이러한 현실은 비극입니다. 문제는 소득은 줄어드는데 반해 기본적인 생계는 물론이고 주거 관련 비용은 계속 높아만 간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소비자의 소비에 기대어 성장해야 하는 자본주의 동력은 텅 빈 주머니를 마른 걸레 짜듯 털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 그대로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거시적인 정책을 바꿔야 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지만, 그렇다고 개개인인 우리도 정책만 바라보며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절대로 그 어떠한 상황이 와도 신용카드는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탈리아 사회학자 마우리치오 라자로가 쓴 "부채인간"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은 신용카드를 절대로 발급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를 간단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한 인간을 평생 채무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 하도록 빚의 노예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그의 손에 신용카드를 쥐어 주는 것이다." 한정된 소득 안에서 반드시 써야 하는 지출들이 무척 많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할 것이고 현대 사회에서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 요금도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거비용이며 생활비와 교통비로 지출하고 나면 소득은 금방 바닥이 납니다. 이런 와중에 조금 편리하게 소비를 하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마치 비상용처럼 느껴지는 신용카드는 사실 나를 도와주는 친구가 아닌 언제든 칼이 되어 나를 공격하는 내 지갑과 내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무서운 무기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부족한 소득이더라도 약간의 비상금은 늘 마련해 놓도록 합니다. 늘 비정규직과 계약직으로 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보험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내 삶의 안전망은 민간 보험사의 보험이 아니라 언제든 찾아 쓸 수 있는 비상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놓도록 합시다.

돈은 시간과 무척 닮았습니다. 한 번 쓰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꼭 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기 전에 계획을 잘 세워야만 합니다. 실상 저희 재무 상담 전문가들이 한 명

한 명 만나서 들려준 상담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정된 시간을 잘 활용하여 쓰기 위해서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할 일과 급하지 않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을 구별하여 할 때에만 많은 일을 부족한 시간 안에서 할 수 있듯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지나치게 싸고 저렴한 물건만 그것도 할부로 구입하려 하지 마세요. 차라리 1년 미만의 소비나 지출을 위한 저축계획을 세워, 푼돈이더라도 모아서 약간의 목돈을 써 보는 경험을 해 보기를 당부합니다. 이 방법만이 목돈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고 나에게 꼭 맞고 필요하면서 하고 싶은 일에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 삶을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선물같이 주어진 내 인생을 나만의 방법으로 잘 살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세가 말했듯이, “인간 개개인은 자연의 꼭 한 번뿐인 시도” 이니까요. 비록 세상은 내 위주로 돌아가 주지도 또 어려운 나를 위해서 대책과 복지를 마련하지도 않는 동정 없는 곳이지만, 포기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하고 싶은 작은 일들을 해 나가면서 진정 돈을 쓰는, 그리고 돈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기분을 만끽하기를 당부합니다. 그것만이 신용카드 없이도 재정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임을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기에 꼭 돈이 많아야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앞에 놓인 기나긴 삶 위에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일하는 청년에게 희망을

참가자 후기 – 사업담당자

세상을 향한 꿈을 가진 청춘들에게

함께일하는재단 전략팀 김규성 선임매니져

대학생 지원 사업을 담당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내 학창 시절을 돌아보게 된다.

내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며 나를 준비하기 보다는 그저 주어진 상황에 나를 맞춰 갔던 것 같다.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 이과(자연계) 선택, 성적에 맞춰 입시 원서를 쓰고 시험을 보는 일련의 과정들 말이다. 그래도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라 시험 본 후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ARS를 통해 합격 발표를 듣던 그 순간 많이 긴장했던 기억이 난다.

그 당시 대학 등록금은 입학금 포함 170만원 남짓이었다. 가정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던 관계로 매 학기 등록금 낼 시기가 다가오면 부모님은 등록금을 구하기 위해 친척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빚을 얻기 위해 전전긍긍하셨던 걸로 기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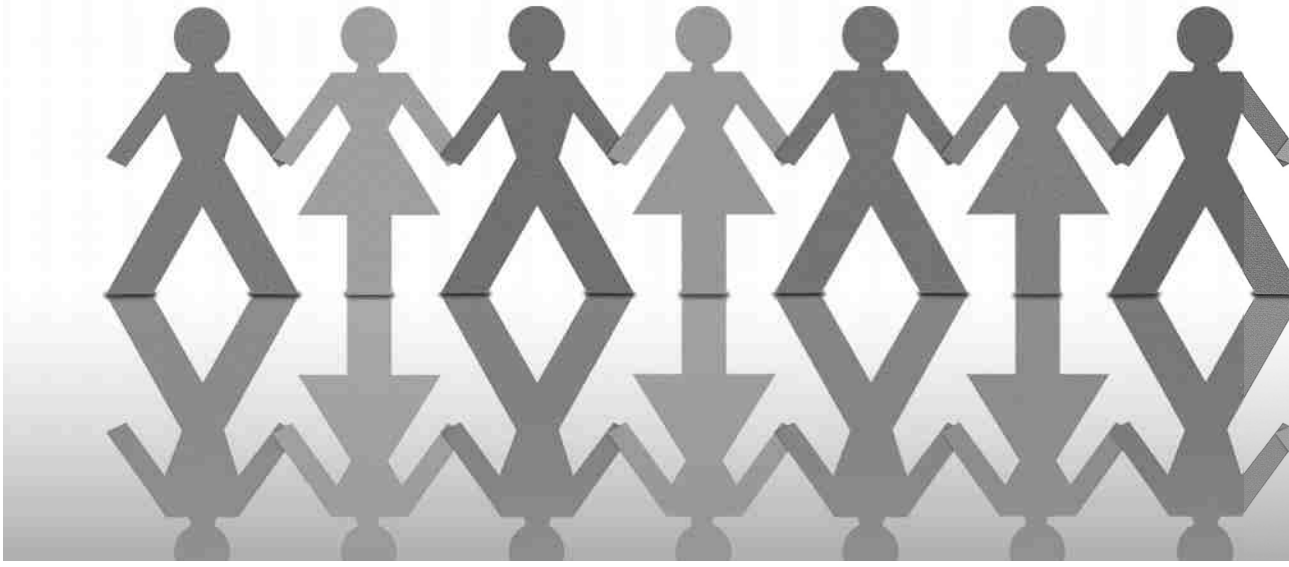
대학 3학년이 되던 1995년, 아버지께서는 대학 등록금은 스스로 벌어서 다니라는 통보를 하셨다. 그 당시만 해도 방학기간 일용직 노동을 하면 한 학기 등록금은 낼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등록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군제대 후 복학할 무렵 이미 한 학기 등록금은 200만원을 훌쩍 넘기고 있었고, 어느새 1년 등록금 천만원 시대가 되었다.

재단에서 G마켓 대학생 등록금 지원 캠페인 사업을 설계하며 2011년 등록금 지원 사업 당시 학생들의 상황을 분석해 놓은 통계를 보며 많이 놀랐다. 한 학기 평균 345만원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학자금 대출 뿐 아니라 제 2금융권, 심지어 사채까지 빌렸다는 학생들의 이야기는 지금 대학생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또한 한 학기 등록금을 벌기 위해 8개월 넘는 시간을 아르바이트에 몰입해야 하고, 심지어 등록금을 벌기 위해 휴학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 대학생들이 처한 현실이었다. 우리 재단에서는 이같은 대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을 통해 과잉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그에 따라 확보된 시간을 활용하여 본인의 사회 진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G마켓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내고 학생들의 참여를 기다렸다. 3차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20명과 사업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만나는 날, 대학생들의 활기찬 모습 이면에 그들이 들려주는 어려운 경제 상황 이야기가 마음을 아프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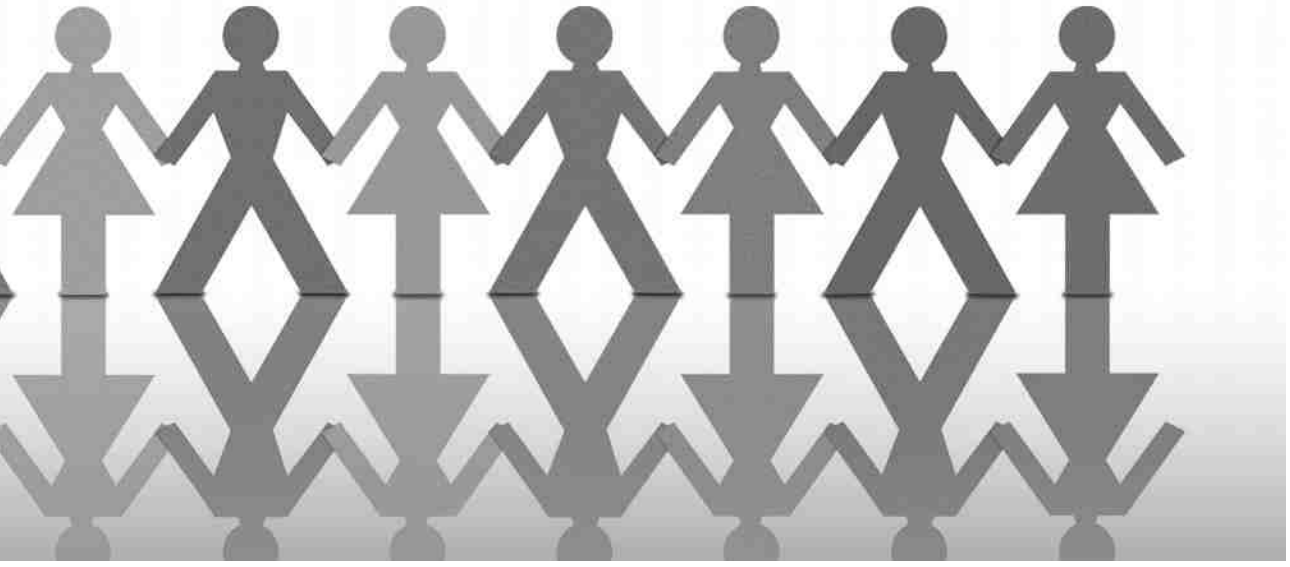
시간이 흘러 7월, 패어웰파티@지리산에서 만난 학생들은 여름방학 내내 고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오리엔테이션날 봤던 밝고 활발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재밌게 놀고, 속깊은 이야기도 나누며 많이 친해지는 시간이 되었다.

각자 전공도 다르고, 꿈도 다르지만, 자기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내가 대학시절에 저런 고민을 했었던가 돌아보게 되었다. 어찌보면 곧 취업 전선에 나설 대학생들이 자기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영어 공부와 스펙쌓기를 위해 아등바등거리는 모습이 안쓰러워보였다. 그래



도 이 친구들이 우리 재단과 G마켓의 작은 지원으로 날개를 달아 다른 청년들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 학생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대학생 20명과 6개월 남짓 멘토링과 미션 수행 지원을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한 학기 등록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어찌보면 크지 않은 금액을 지원했지만, 연신 고마워하며 적극적으로 임한 학생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나 고맙고 뿌듯하다. 또한 캠페인 참여를 통해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많이 되었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평가를 들을 때, 이번 캠페인의 가장 큰 성과는 바로 이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부디 이번 지원에서 얻은 에너지를 잊지 않고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



04 언론보도

일하는 청년에게 희망을

언론 보도

G마켓, 대학생 등록금 지원 이벤트

아르바이트로 목표적립금 달성 시 등록금 200만원 지급

입력 : 2012-11-29 오전 10:08:41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오픈마켓 G마켓은 '함께 일하는 재단'과 함께 다음달 26일까지 대학생 등록금 지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등록금 부담으로 과도한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는 대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대학 재학생이면 누구나 이벤트에 신청할 수 있다. 2013년 2학기 복학예정자도 가능하다.

G마켓 이벤트 페이지에 있는 지원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총 20명을 선발해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본인의 비전, 현재 아르바이트 월급 활용 내용 및 미션 수행 의지, 태도 등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학생에게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목표금액을 적립하는 일종의 미션이 주어진다. 목표적립금은 본인의 한 학기 등록금에서 20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주최 측과 협의해 설정하면 된다.

2013년 2월부터 7월까지 목표적립금을 모두 쌓아 미션을 완료하면, G마켓이 장학금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미션을 실패할 경우라도 중간평가 등 미션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의해 일부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소정 G마켓 마케팅실 상무는 "비싼 학자금으로 고민하는 대학생이 많아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후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is( )

인쇄하기 | 닫기

함께일하는재단 '일하는 청년 희망캠페인' 대학등록금 지원

기사등록 일시 : [2014-01-24 11:19:35]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함께일하는재단(이사장 송월주)과 G마켓은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일하는 청년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펼쳤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참가자로 선발된 대학생 20명이 아르바이트 등 근로활동을 통해 등록금 절반에 해당하는 목표액 적립을 완료하며 나머지 절반(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목표액을 모으는 과정에서 생활 경제 멘토링을 통해 학업 및 진로개발 시간을 확보해 근로 활동과의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또 소비생활 패턴에 대한 관리를 통해 저축하는 습관과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길러 참가자들의 월 평균 지출이 22.3% 감소했다.

김규성 함께일하는재단 전략팀 매니저는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 때문에 심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와 같은 캠페인을 확대해 일하며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꿈과 진로를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께일하는재단은 등록금 부담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G마켓과 지난 2012년부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sky0322@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사진 구매 : 콘텐츠 판매

세상을 향한 꿈을 가져라!

G마켓 대학생
등록금 지원 캠페인 2013
성과보고서

프로젝트 기간 2012년 11월 ~ 2013년 12월

발행일 2014년 2월

Gmarket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http://www.gmarket.co.kr

WT 함께일하는재단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6길 36번지
www.hamkke.org

Gmarket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http://www.gmarket.co.kr

WT 함께일하는재단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6길 36번지
www.hamkke.org